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1년 12월 9일 (목)

News

은행 주담대 '반토막'…3년9개월 만에 최저
한국경제

한국은행 발표 '2021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9,000억원으로 전월비 3조원 증가…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
주담대 증가폭이 줄어든게 직접적 영향… 11월 증가폭 2조 4,000억원으로 10월 증가폭인 4조 7,000억원의 절반 수준…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효과라는 분석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존 4%→5% 조정될듯
e대한경제

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 측의 규제완화 의견을 받고 내부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 중
원해 권고하려고 했던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준은 4%였으나, 실수요자 문제 등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조금 완화될 가능성… 내년 DSR 2단계 시행 때문이기도…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관리 제외에… 시중은행도 뛰어들 채비 분주
머니S

금융당국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하는 방안 검토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이 시장에 본격 뛰어들 채비 중
가계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대출과 함께 수익 개선의 돌파구로 여겨… 정교한 신용평가모형 구축이 관건

넷마블,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전량 5143억에 처분
머니투데이

넷마블, 카카오뱅크 보유 주식 761만 9,592주 전부를 5,143억 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예정… 넷마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9.1%에 해당하는 규모
사측, 처분금액은 2021년 12월 8일 해당 종목의 종가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언급… 처분 목적은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라고 설명

보험사 대출 빗장 풀리나? … 삼성화재·KB손보, 신규 주담대 재개
머니S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이후 중단했던 주담대 판매 재개… 내년부터 실행하는 대출 수요자에 자금 제공
이러한 움직임은 대출 중단한 다른 보험사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DB손해보험과 동양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대출 재개 시점을 확정짓지 못하는 상황

임기 만료 앞둔 보험사 CEO, 누가 연임하고 누가 교체될까
인사이트코리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내어 대부분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업계 예측
다만 KB생명보험 사장의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18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이은 적자 때문

증권사 고정이하여신 급증…선제 관리 '경고등'
연합인포맥스

국내 47개 증권사 전체 자기자본 대비 고정이하여신비율 3.1%로 작년 연초 대비 0.8%p 증가… 고정이하여신금액은 전년대비 약 9천억원 증가
자본확충만큼 고정이하여신이 빠르게 증가해… 실적 개선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는 진단… PF 등 투자로 수익 창출한 만큼 부실화된 자산도 증가했다는 해석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시장 되살아나, NH투자증권 선두권 약진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사업 되살아나는 중… 시장점유율 순위에 눈에 띄는 변화로 NH투자증권의 약진 부각
NH투자증권의 PBS 계약잔고 규모 10조원을 넘어서… 기존 선두였던 미래에셋증권은 3위 밖으로 밀려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